

빛이올라온 곳

金淑賢 戲曲集



홍범원

● 차례 ●

11月の戀歌	11
바이올렛 왈츠	41
못 찾겠다 피꼬리	73
미스 줄리	107
장미와 모과	133
재귀열	181
伴侶者	203
연년생	221
사다리 위에서	241
한낮의 붕괴	297
人間에 대한 끈끈한 사랑	355
내 사랑은 앓고 있다	359

하겠다.

이러한 삶의 悲歌는 노인의 고독을 다룬 「재귀열」로 연결된다. 탈춤의 「미일할미 과정」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노후에 있어서 血緣의 끈끈함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舊式 結婚制度 혹은 중족제승을 미끼한 一夫多妻制라든가 妻妾의 문제를 지언스럽게 제기한다. 그런데 金淑賢의 작품 전체에서 풍기는 것은 주인공들의 따뜻한 人間性에서 보여주는 대로 여성적 휴머니즘이다. 이는 결말이 대체적으로 和解로 끝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의 감정이다. 그의 사랑의 감정은 「11월의戀歌」에서 절정을 이룬다. 끝내 이를 수 없는 사랑이라든가 첫사랑에의 동경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깔려있는 이 작품은 金淑賢의 마를 줄 모르는 순수한 애정의 그리움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는 곧 작가가 世俗化 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서 앞날을 기대케 한다. 해가 갈수록 좋은 작품을 발표하는 여류 金淑賢은 분명히 80년대를 이룬다운 戀歌로 수 놓을 극작가라 하겠다.

다음에 내용을 작품을 기대해 본다.

〈연극 평론가〉

내 사랑은 앓고 있다

金 淑 賢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떠한 정열적인 포즈도 全純한 사랑과 감동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일때 그의 모든 정열은 일종의 우스꽝스럽고 무참한 헤프닝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공감자를 찾지 못한 예술행위란 객사랑만큼이나 괴롭고 험한 딜레마다. 표면적으로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일이 여러가지 의미로 불만족해서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일을 가리켜 잠재적 실업이라고 했던가. 78년 첫 회목집 「외줄 위의 扮裝師」를 낸후 「사다리 위에서 (79년)」가 現代文學誌에, 「못 찾겠다 피꼬리 (80년)」를 月刊文學誌에 게재된 이후 본의 아닌 실업자가 된 셈이다. 응분의 고료가 따르는 작품 창작은 그 이후 받아보기 힘들다. 이 어찌 잠재실업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主婦라는 만만찮은 일터가 있어 밥은 먹고 살았으나 내 사랑은 공감자를 만나지 못해 시나브로 앓고 있다. 이런 때에 主婦業이나 마 소신껏 종사하게 하는 나의 선량한 家長과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내노라하는 인기작가도 못 되면서 흥감을 부려대는 내게 언제나 너그럽고 다정한 연꽃모임의 친구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보낸다. 나와 똑같은 연배의 그들,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들을 위

하여 「한낫의 붕괴」와 「바이올렛 왈츠」를 썼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애정 표현 방식이기에, 「한낫의 붕괴」가 구상화라면 「바이올렛 왈츠」는 추상화라고 할 수 있겠다.

「11월의戀歌」는 어느 독립 투사의 회고담에서 소재를 얻었다. 실제의 여주인공은 독립투사인 그녀의 전 남편을 끝내 만나보지 못한 채 죽었다고 한다. 그녀가 남의 아내로서 이미 아이까지 낳아 살면서도 끝까지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작품은 그녀의 아름다운 忍從에 대한 진혼사이며 우리 여인네 속에 이어져 내려온 통한의 美德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장미와 모과」는 두사람이며 동시에 하나인 자매를 통해서 간격간격 한 혈육관계의 갈등을 그려 보았다. 모과나무의 가지는 서로 뻗어나가다가 마주치면 다시 한가지로 합쳐버리는 성질이 있다. 무의식 속에서 서로가 지니지 못한 점들을 선명하면서도 의식 속에서는 가혹하게 싸우는 자매, 그들은 모과나무의 가지처럼 서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수치를 나눠 가지며 피를 흘린다. 그리하여 똑같이 파멸되며 동시에 구제된다.

「못 찾겠다 피꼬리」는 79년에 탈고해서 80년 3월에 月刊 文學誌에 게재했고 그 해 12월 「한국 회곡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후 얼마 있다가 조용필의 同名의 노래가 히트를 했다. 우리 아파트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러 온 총각들이 어찌다가 實隙을 엿었음인지 조용필의 노래를 지은 게 아줌마나고 정색을 해서 한바탕 웃은 일이 있다. 아이! 정말 못 찾겠다 피꼬리일까? 나의 사랑은……

연극을 가리켜 종합 예술이라고 한다. 음악·미술·무용 등의 총화가 이루어낸 마지막 結晶이라는 뜻일게다. 그런데 연주회라든가 무용발표회에 가보면 그 나름대로 너무나 완벽해서 때로는 연극이 설 자리를 잃은 듯한 캄플렉스마저 느낀다. 抒情的인 면에서라면 음악을 따를게 없

고 울동의 다이나믹한 면이라면 무용을 따를게 없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국의 연극 평론가 에릭 벤트리의 「이야기 하는 사람으로서의 劇作家」라는 글을 떠올려 용기를 되찾는다.

「한편의 회극 작품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체념한 관객을 위해 말 이외는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쓴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그는 회극에 있어서 言語의 權力을 첫째로 꼽아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소박하고 原論的인 회극관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다. 장모따리를 풀되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흥미진진한 걸 가지고 한껏 떠들석하게 펼치라고 충고한 연출가가 있지만 난 내 주변에서 모은 내가 잘 알 수 있는 세계를 쓰는, 작지만 확실한 길을 택하기로 한다.

그것이 나의 한계이며, 더 나아가 나의 長技로 승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기꺼이 題字를 써주신 석정 스님, 비쁜신 중에도 촘촘히 읽고 평을 써 주신 柳敏榮 선생님, 삼화를 맡아 준 이 난호 화백, 이 책의 산파역이 돼준 동양정관사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보낸다.

1984년 7월 金井山 기슭에서

淑賢



金淑賢 戲曲選集(2)
마이을렛 왈츠

1984년 8월 25일 첫번째 판음
1984년 8월 30일 첫번째 펴냄

지은 이 김 淑 賢
펴낸 이 김 경 길

펴낸 데 흥 범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전화 : 724 - 7614
등록 년월일 1968년 5월 20일
등록번호 제 1 - 450 호

값 3,800 원

업무연락 : 부산시동래구장전 3동 금정맨션나동 305 호
저자연락처 : 부산 56 - 4713 · 서울 724 - 7614

이 회구집은 문예진흥원의 일부 지원을 받아 간행 되었습니다.